

## 음양오행속성의 물리적 해석에 의한 체질론

장동순, 배연경, 최혜선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환경공학과

대전시 유성구 궁동 220

p\_dsjang@hanbat.chungnam.ac.kr

## Study of the Human Constitution by the Physical Interpretation of the Properties of Yin-Yang and Five Elements

Jang, Dong-Soon, Bae, Yeon-Kyung, Choi, Hye-Sun

220 Gungdong, Yusunggu, Taejon

p\_dsjang@hanbat.chungnam.ac.kr

### 要 約(Abstract)

본 논문은 동양의 중요사상중의 하나인 음양오행의 오행속성을 물리적으로 해석하여 사람의 오장육부의 크기와 얼굴형상에 따른 체질을 분류하였다. 이 분류에 대한 이론적 보완으로 동양최고의 의학서적으로 알려진 황제내경에 나타난 체질분류,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로 사용된 음양오행이론, 그리고 오행생식요법에서 제시한 얼굴형상등과 본 이론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리스 철학자 엠페도클레스의 체질론이 감성연구에 대한 효시로 거론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양의 全一的인 사고시스템인 음양오행에 의해 체질론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확립된다면 감성연구에 일조하는 바가 크리라 생각된다.

### 음양오행과 감성

이성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感性이란 단어가 최근 감성지수나 감성과학이라는 새로운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감성이라는 말이 이와 같이 유행되고 있는 이유는 첫째, 지능지수로 표현되는 이성만으로는 복잡한 산업사회의 한 인간의 총체적인 능력을 표현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추진력, 상상력, 확일성, 사교성, 인내력 등 여러 다양한 소양들이 한 인간의 능력 평가에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들쭉는 선진국 등에서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사람의 회로애락을 포함한 미묘한 감성을 만족시키는 제품 개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외국 가전 업체나 자동차 설계 분야에서 중요한 인자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감성 응용은 감성 만족의 요구 차원을 넘어서 향기요법이나 음악치료 등 대안의학의 한 분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세번째 마지막으로 무한경쟁 산업사회에서 육체적 능력의 차별화가 두드러졌으며, 심신상관의 관점에서 육체의 질병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이 모아지기 시작했다. 비근한 예를 한가지 들면, 간이 나쁜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성향이 두드러져 사회생활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복합적 요인에 의한 감성 중요성에 힘입어 국내에서도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을 망라한 학제간 연구로 감성과학회가 태동되었다. 감성과학회에서 주장하는 감성과학에 대한 기본 개념은 감성과학이라는 합성어가 '동그란 사각형'과 같은 말로 표현되듯이 스스로 자가 당착을 지닌 조어라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데카르트-뉴턴 이래 서양과학이 추구해 온 바와 같이 정량화나 물적 증거가 용이치 않은 냄새, 맛, 氣, 마음 등의 영역이 처음부터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감성에 대한 과학적 접근은 감성의 성격상 어렵다는 의미이다. 서양에서 감성에 대한 연구의 효시는 그리스 철학자 엠피로클레스(기원전 450년 경)가 인간의 유형을 동양의 체질론과 유사한 담즙질, 우울질, 다혈질, 점액질 등 4가지로 분류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체질분류를 한 근거는 인간의 육체가 지상의 물질들과 마찬가지로 불, 흙, 공기, 물이라는 네 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는 심리학에서는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감성과 신경 생물학적 성향을 연결짓는 연구는 크게 중요시되고 있지 않았으며, 심리학은 단지 교육과 경험 등의 차원에서만 강조되었다. 실제로 감성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지만은 감성지수를 측정할 EQ 테스트 문체에 대한 학문적 검증을 거친 설문조사서조차도 제대로 없다는 데서 이 분야 연구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반영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 글에서는 동양사상의 한 줄기를 이루어 온 음양오행의 이론에 기초하여 사람의 체질분류와 그에 따른 성격 및 感性을 논하기로 한다. 그 전에 감성과학의 필요성을 한 두가지 구체적인 사례에 비추어 강조하며 이를 체질론과 연계시키고자 한다. 이성 이외의 요인이 실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예로 지능지수와 교육수준이 비슷한 경우라 할지라도 사람의 성향에 따라 어떤 일에 대한 책임여부가 결정되는 구체적인 경우를 고려해 보자. 군대에서 적진 깊숙이 척후병이나 탐색조를 보낼 때는 같은 조건이라면 전진하는 기상이 있는 사병을 보내야 할 것이며, 탈환해야 할 고지 바로 앞에 있을 때는 폭발적으로 돌격할 기질이 있는 병사를 뽑는 것이 크게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군수 물자를 챙기는 데는 그야말로 답답할 정도로 융통성이 전혀 없는 병사가 책임자일 것이며, 어떤 그룹의 장을 뽑을 때는 술선수범하는 통솔력과 책임감이 훌륭한 사람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참호를 깊이 파고 장기간 진지를 지킬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인내력이 좋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적성에 따른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배치문제는 기업의 인력관리 차원등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일반적인 이론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적성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 취향에 따라 좋아하는 분위기, 맛, 모양, 색깔, 소리, 향기 등에서 현격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적성과 취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기준이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은 음양오행의 속성과 체질분류에서 그 기본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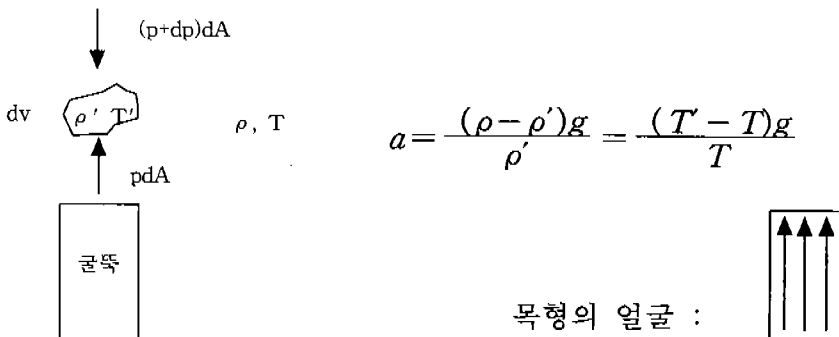
음양오행 이론에 의하면 우주 삼라만상은 木, 火, 土, 金, 水 5가지 기본 속성으로 이루어졌으며 인간도 이 5가지의 속성이 많고 적음에 따라 木型, 火型, 土型, 金型, 水型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만일 어떤 사람이 木, 火, 土, 金, 水 5가지 성질을 20%씩 똑같이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오행 표준형이라 할 수 있다. 동양고전에 나타난 木, 火, 土, 金, 水의 물리적 속성은 木은 緩(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운), 火는 散(폭발적으로 흩어지는 기운), 土는 固(동종물질간에 결합하는 기운), 金은 緊(긴장시켜 결정을 이루는 기운), 水는 軟(軟하고 찬물같은 기운)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속성에 기초하여 물리적 개념으로 이론을 전개하면 사람의 얼굴형상에 의한 체질분류, 체질분류에 따른 성격 파악, 그리고 혈관을 흐르는 맥파의 형상에 대한 일반화가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일단 오행속성의 물리적 해석에 의한 오장육부의 크기와 얼굴형상에 따른 체질분류를 시도하고 황제내경, 훈민정음, 오행생식요법 등에 나타난 음양오행 형상화의 결과와 비교하기로 한다.

### 오행속성의 물리적 해석에 의한 얼굴형상 및 체질

오행은 木, 火, 土, 金, 水이며 그 속성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그 순서대로 緩, 散, 固, 緊, 軟으로 五行分類에 나타나 있다. 이 정의를 물리적으로 해석하여 얼굴형상을 파악하고 이것으로 체질을 분류의 基本으로 삼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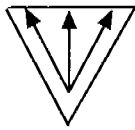
木型 : 木의 속성은 緩이고 緩의 의미는 봄의 기운이 나타내듯이 완만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기운으로 정의한다. 따뜻한 기운은 熱流動의 觀點에서 주위보다 밀도가 작아지며 밀도차이가 크면 클수록 아래식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상승하는 부력을 가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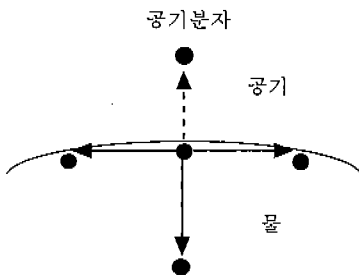
인체에서 木의 기운은 간·담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간이 커서 목기가 많은 사람은 아지랑이나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가듯이 긴 얼굴이 된다고 본다. 간이 큰 사람은 얼굴뿐만 아니라 몸매도 날씬하며 목소리도 날카로운 사람이 많다.

火型 : 사람에게서 火의 기운은 심장과 소장에서 나온다. 火의 속성은 흩어지는 散이며 이것은 高溫·高壓의 기체가 순간적으로 퍼져나가는 양상으로 생각된다. 자연현상으로 더운 여름날 아스팔트 위를 솟아오르는 熱氣를 연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심장이 커서 火의 기운이 많은 사람의 얼굴은 역삼각형이 된다고 보며 이런 사람은 얼굴뿐만 아니라 심장이 들어있는 가슴도 넓고 두꺼운 역삼각형인 사람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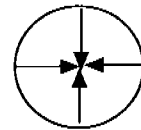
화형의 얼굴 :



土型 : 오행에서 土의 기운은 비장과 위장에서 나오며 土의 속성 固는 끈적끈적한 기운이 서로 엉기어 단단해지는 즉 동종물질간에 작용하는 응집력으로 생각된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例는 표면장력에 의해 수은이나 물방울이 구형의 액적을 이루는 형상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이러한 구형의 형상은 단위체적당 표면적이 가장 적어지는 형상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힘이 내부로 向하는 양상을 띠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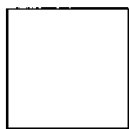


토형의 얼굴 :



金型 : 金의 기운은 폐·대장에서 나와서 金의 속성인 緊은 긴장시켜 結晶을 이루는 힘이 다. 그러므로 폐·대장이 強하여 金의 기운이 많은 사람은 결정을 이루어 角이 分明한 四角形의 모양을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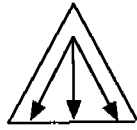
금형의 얼굴 :



水型 : 水의 기운은 신장·방광에서 나오며 水의 속성인 軟은 연하고 찬물과 같은 기운으로 생각될 수 있다. 찬물과 같은 유체는 유체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전단력이 작용하는 한


변형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찬 유체는 밀도가 높고 중력에 의해 움직여야 하므로 아래 그림과 같은 삼각형의 氣運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수형의 얼굴 :



아래표에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오행속성에 기초한 기본적인 성격과 五情, 덕 등을 추가로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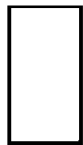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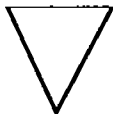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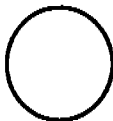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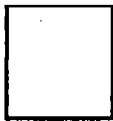



표1. 오행분류표

| 五行       | 木   | 火   | 土   | 金  | 水   |
|----------|---|---|---|--|---|
| 속 성      | 緩   | 散   | 固   | 緊  | 軟   |
| 설 명      | 따뜻하고 부드러운 에너지   | 순간적으로 확산하는 열기   | 동종물질 간에 엉겨 붙는 힘   | 결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긴장시키는 힘  | 긴장상태에서 빠져 나오기 위한 차고 연한 힘  |
| 얼 굴 모 양  |  |  |  |  |  |
| 큰 장 부    | 간·담낭  | 심장·소장   | 비장·위장   | 폐·대장   | 신장·방광   |
| 약 한 장 부  | 비장·위장<br>폐·대장   | 폐·대장<br>신장·방광   | 신장·방광<br>간·담낭   | 간·담낭<br>심장·소장  | 심장·소장<br>비장·위장  |
| 기 본 적 성격 | 추진력 있고 착하고 부드럽다. 앞날의 계획을 잘 세운다.   | 정열적이고 운동을 좋아하며 예의가 바르며, 뒤끝이 없다.   | 남을 의식하지 않고 비위가 좋고 고지식하며, 일편단심이다.  | 자존심이 강하고 규칙적이며 술선수범하며 의리가 있다.  | 상황변화에 잘 적응하고, 지혜로우며 잘 참고 씩씩하다.  |
| 五 情      | 怒   | 喜   | 시기, 질투, 생각  | 悲  | 恐   |
| 덕 목      | 仁   | 禮   | 信   | 義  | 智   |

다른문헌의 五行체질·속성의 비교는 아래표에 황제내경, 훈민정음, 오행생식요법에 나타난

자료와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정리하였다.

표 2. 훈민정음 창제원리의 음양오행과 황제내경의 오행 체질의 比較

| 훈민정음 <sup>(1)</sup> |   |            |     | 황제내경 <sup>(2)</sup> | 五行生食<br>요법 <sup>(3)</sup>   | 五行<br>屬性 | 五行의<br>물리적<br>해석 <sup>(4)</sup>   |
|---------------------|---|------------|-----|---------------------|---|----------|---|
| 木                   | 牙 | ㄱ, ㅋ, ㆁ    | 錯而長 | 小頭, 面長              |    | 緩        |    |
| 火                   | 舌 | ㄴ, ㄷ, ㄹ, ㅌ | 銳而動 | 턱이 뾰족               |    | 散        |    |
| 土                   | 脣 | ㅇ, ㅎ       | 方而合 | 둥근얼굴                |   | 固        |   |
| 金                   | 齒 | ㅅ, ㅆ, ㅈ    | 剛而斷 | 角顔                  |  | 緊        |  |
| 水                   | 喉 | ㅍ, ㅂ, ㅍ    | 邃而潤 | 大頭                  |  | 軟        |  |

### 참고문헌

- (1) 강신항, 훈민정음연구
- (2) 황제내경 영추편, 홍원식 역, 고문사(1971)
- (3) 김춘식, "오행생식요법", 도서출판 유림, 서울(1992)
- (4) 장동순, "음양오행의 과학적 조명", 제 2회 정신과학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pp.22~34, 동국대학교(1995, 4월 15~16)